

기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한겨레신문

장필수 기자



고 최진경 씨의 장례식장 빈소 알림

‘사랑하는 고 최진경(유리안나)님께
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2023년 11월4일 토요일 오전 8시
14분, 잠결에 실눈으로 흘겨본 휴대전
화 화면에 문자가 하나 떠올랐다. 최진경
(48) 씨가 보낸 본인 부고 문자였다. 문
자를 받아든 순간, 두 눈을 다시 감고 국
회 국정감사장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진
경 씨는 숨지기 한 달 전 고용노동부 국
정감사장에 출석해 산업재해 역학조
사의 지연 문제를 제기하려 했다. 하지
만 이미 뇌를 포함해 온몸에 퍼진 암세포
가 발목을 잡았다.

“4년을 끌더니 납득할 근거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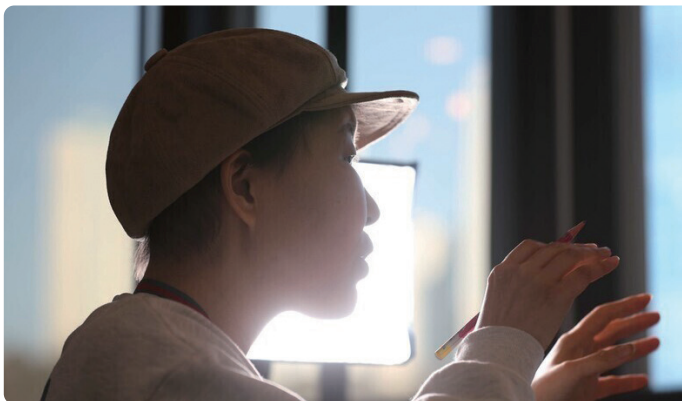
하지 못한 채 불승인됐습니다. (...) 지금
은 제 몸 상태가 당장 하루 앞을 장담하
기가 힘듭니다. 꼭 산재법이 개정돼 더
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
습니다”

편지에 담긴 마지막 당부는 우원식 의
원의 분노 서린 목소리를 타고 국정감사
장에 울려 퍼졌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정
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가 꼼꼼하게 챙
겨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이 실제 그
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
만, 이미 늦었다. 진경 씨는 이 장관이
약속한 날로부터 22일 뒤 숨졌다. 자신
의 병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했음을 끝
내 인정받지 못했다.

2023년 2월25일 토요일, 그를 처음 만났다. ‘여자, 46세, 유방암, 삼성전자 기흥공장, 칼라필터 기술개발 등 연구업무 수행에 따른 벤젠 포함 화학물질, 방사선, 전자파 노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남겨진 건조한 프로필과 달리 그의 목소리와 인사에는 생기가 돌았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를 단번에 날릴 만큼,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머금은 미소도 함께였다. 약물치료 탓에 머리숱이 줄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다면, 유방암 말기 환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

17년간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6년의 실험실 생활을 거친 그는 퇴사한 지 1년 만에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실내 인테리어를 배워 새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였다. 우리 사회는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 치명적인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다. 진경 씨는 자신이 일하다 병을 얻은 것인지 확인받고 싶어 산업재해 신청서를 냈다.

신청자가 말기 암 환자이기에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가 진즉 시행됐어야 했지만, 조사 수행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은 1369일(2023년 1월31일 기준) 동안 그에게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다. ‘180일 안에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는 하염없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렸지만 역학조사가 1369일(2023년 1월31일 기준) 넘게 진행되면서 산재 신청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던 최진경 씨가 2023년 2월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집에서 과거 근무하던 시절의 일과 암 투병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결과를 기다리던 중 취재진을 만났다.

“사실 진경 님의 사례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역학조사를) 1000일 넘게 기다리신 분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는 ‘2년 내에는 판정이 날 것’이라는 노무사의 말조차 잊고 살다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됐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쓰며 조사 결과를 기다려왔지만, 국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맞닥뜨리자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잔인한 질문은 계속됐다.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이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언급하는 게 속 쓰렸지만, 일은 마무리해야 했다. 가슴 속에 숨겨둔 마음을 최대한 끌어내야 했다. “산재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조사 결과라도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산재 승인이) 안 될 가

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약 2시간 정도 이어진 인터뷰 끝에 그가 체념한 듯 말했다. 돌아가는 길에는 ‘암은 자세하게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암세포가 뇌까지 퍼진 상황을 가족들에게는 숨기고 싶어 했다.

2023년 3월10일 한겨레 지면에 진경 씨 이야기가 실리자, 산보연은 분주히 움직였다. 보도한 지 닷새가 지난 뒤 진경 씨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면담조사를 요청했고,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산재 신청 당시 이미 진경 씨가 근무했던 연구실과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는 사라진 상황이었다. 삼성전자는 ‘개발 업무는 확인 불가하다’고 입장을 산보연에 전했다. 산보연은 두 달 만에 역학조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마무리 지었다.

결과는 ‘불승인’이었다. 산보연의 조사 결과를 받아든 근로복지공단도 ‘폴리염화바이페닐(PCB)과 방사선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다만, 심의위원 7명 중 한 명이 ‘유방암과 관련 있는 유해요인(방사선, 산화에틸렌 등)으로 병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고, 특히 첨단산업에서는 법적·규범적(보편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절망적인 결과였지만, 진경 씨는 포기하

지 않았다. 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정에 의견을 제기하는 한편, 마지막 순간까지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귀한 시간을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알리는 데 쏟아부었다. 기자와 인터뷰 이후 산재 불승인을 받아들 때까지, 일련의 시간이 진경 씨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던 것일까.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로 조사 결과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사망한 노동자가 최근 5년 간(2018~2022년) 111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국회와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정상적인 국가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린 우원식 의원은 역학조사 기간을 법정화해 이를 넘기면 국가가 산재 보험금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경 씨는 이때 병상에서 힘을 보탰다. 그의 변호사는 개정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참석해 “무엇을 조사하느냐 4년이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진경 씨의 입장을 전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일은 드물다. 이기기 어려운,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싸움에 기꺼이 뛰어들든 그의 용기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접한 그의 목소리는 반가웠고, 때론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미안했다. 산재 처리를 놓고 연락을 주고받았으



한겨레의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 이후인 2023년 10월4일 국회소통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자회견을 열어 역학조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을 초과하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산업재해 보험금을 선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우원식 의원실 제공)

나, 건강과 안부를 묻는 문자는 한 통도 보내지 않았다. 첫 만남에 접한 밝은 미소가 '시들어가는 암 환자의 이미지와 달라서'라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다.

“동생이 떠나기 전 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사람들을 따로 모아두었어요. 저희도 보낼 때 실례가 되는 건 아닌가 했는데...” 부고 문자를 받은 당일 밤 서울 경희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마주했다. 소주 몇잔을 들이키다, 어렵게 말을 건넸다. “제가 진경 씨와 인터뷰한 게 오히려 마지막까지 진경 씨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요” 마주 앉은 언니 영정 씨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진경이의 마지막을 보고 참 진경이스럽다고 생각해요. 예전 학생 시절에도 불

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열심히 문제 제기했을 텐데 아쉽네요” 영정 씨는 애써 미소 지으며 무거운 분위기를 달랬다.

영정 사진 속 진경 씨는 선글라스를 쓰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암 진단받기 전 가족들과 원주에 있는 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함께 고른 사진인데 가족들도 좋아하고, 조문객들도 전부 ‘정말 진경이 같은 스타일로 잘 골랐다’고 칭찬 일색이네요” 언니는 퇴사 뒤 생기발랄했던 동생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 탓이었을까. 죽음을 뒤로하고 열린 국회 공청회는 개정안을 놓고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치열하



역학조사를 기다리는 574명의 기록 : 한겨레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뒤 역학조사만 180일 이상을 기다리는 574명의 현황(2023년 1월 기준)을 입수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산재 승인 여부의 불안까지 견뎌야 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질병을 얻었는지 기록 해 최초로 공개했다.(한겨레 2023년 3월6일자 지면)

574명 중 최장경 사례(왼쪽 제일 하단) : 1369일, 여성(46), 유방암, 광소해 컬러필터 기술개발 등 연구업무 수행에 따른 벤젠 포함 화학물질, 방사선, 전자파 노출.

게 토론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여당 간사였던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일 때 (개정)하지 왜 지금 와서 이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선거 끝나고 다시 모여서 논의하자”라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노동계 쪽 입장을 전하고자 참석한 노무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지만, 이 외침은 또다시 허공에 흩날렸다.

진경 씨를 포함해 질병 산재로 고통받은 이들의 삶을 담은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기획 기사를 출고할 때만 해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내심 기대했다. 고용노동부가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역학조사 담당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제2, 제3의 진경 씨는 계속 나오고 있다.

2024년 올해로 10년 차 기자가 됐다. ‘좋은 기사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수습 기자 시절의 포부는 사그라든 지 오래다. 좋은 기사는 생각보다 빨리 잊힌다. 기사로 바뀌는 것 또한 많지 않다. 주목받지 못한 채 가려진 죽음이 너무 많아서일까. 이들을 구하기 위한 제도는 누군가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 취재원의 부고 문자를 받아본 순간의 감정을 잊지 않으려 한다.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려 한다. 짧은 안부 문자 하나 보내지 못했던 기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

한겨레신문 장필수 기자